2020 / 08 / 26 까지 정오 사항.

235p 9번의 1번선지 : ㉰ -> ㉮

158p 4번의 3번 선지 : 높혀서 -> 높여서

158p 5번의 3번 선지 해설 보충 : 연습 장소를 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맞습니다만, '이동'이라는 의미가 <기존의 연습 장소에서, 연습 장소를 무대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을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이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서술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저랑 해설이 다르다고 해서 학습에 지장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A]에서 연습 시간 '축소'의 문제가 '확실하게' 틀렸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토의、협상에서 쟁점을 정확히 잡아내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174p 3번 문제와 해설 순서 다름 : 2번 해설 -> 5번, 4번 해설 -> 2번, 5번 해설 -> 4번

132p 8번 해설 오타 : 면접의 목적 -> 작문의 목적

167p 6번의 3번 선지 밑줄 -> 2번 선지로 (답이 2번입니다. 밑줄을 잘못 체크했네요.)

해설 보충 : 2016 / 06 에서도 '대내'와 '대외'만 나뉘어서 나왔듯이 각각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기도 '학생회'와 '학생'만 나온 것이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49p 4번의 4번 선지 해설 정정 : 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는 찬성 측의 의견은 '부분 동의'하였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담합의 문제점을 거론했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 반론 때 찬성 측 주장에 반박했다는 선지의 진술은 맞습니다.

다만, 기존 해설의 내용은 반대 측의 반론이 아닌 반대 측 입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해설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141p 8번의 3번 선지 : <잘 알 경우 - 잘 모를 경우>로 대조가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

156p 2번의 4번 선지 : 질문일뿐더러 -> 질문이 아닐뿐더러

164p 2번의 1번 선지 : 한시작 -> 한시적
(평소 관심이 없었기에, '평소 관심 있던'으로 풀어도 됩니다! 핵심정보를 중점으로 읽어서 '희소성의 원리'와 엮으려면 '내부' 개방이 아니라 '한시적' 개방으로 푸는 것이 더욱 필연적이긴 하지만요.)

177p 7번의 5번 선지 : 비관 -> 비판

167p 6번의 3번 선지 : 3번의 밑줄 -> 2번으로 (2번이 답입니다.)

186p 오른쪽 단 : 2. 보고서 발표 대화 -> 보고서 발표 대회

201p 우측 3번째 문단 친자연족 -> 친자연적
202p 2번의 5번 선지 궁금하지 않으면 -> 궁금하면
207p 7번의 1번 선지 따지만 -> 따지면

171p 1번의 1번 선지 : 1번의 밑줄 -> 4번으로 (4번이 답입니다.)
264p 3번의 5번 선지 : 5번의 밑줄 -> 2번으로 (2번이 답입니다.)
267p 6번의 2번 선지 : 2번의 밑줄 -> 4번으로 (4번이 답입니다.)

5p 2번째 문단 두 번째 줄 : 반영하였느지 -> 반영하였는지
156p 2번의 4번 선지 : 출처에 대한 질문일뿐더러 -> 출처에 대한 질문을 해야할뿐더러
편파성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 삭제

해설 보충 : 질문 자체는 편파성을 공격한 것이 맞지만 (팬덤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물었으니까요.) 조사 자체가 <팬덤 vs 비팬덤>의 결과를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질문의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습니다.

조사의 내용 자체가 편파적이지 않기에 편파적이지 않다고 서술한 건데, 서술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기에 수정합니다.

216p 첫문단 해설 : 여름방학 단추 -> 여름방학 단축

252p 9번 문제 해설 : 틀리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확실히 틀린 것을 고르세요

269p 10번의 3번 선지 : 체코 -> 체크

287p 9번의 1번 선지 : 상반되지 않네요. -> 두 결과가 상반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무관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름/무응답'을 나타내는 비율은 줄었다는 것을 봐서 무관심은 줄었다고 봐야 합니다. 긍정과 부정의 비율로 무관심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148p 비판하기의 알고리즘 박스 :

마지막 줄의 (부분 동의는 예외입니다.) 부분을 4번 밑이 아니라, 3번 밑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3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A가 B와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 동의에 대해서는 B의 의견이 맞다고 해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58p 5번의 2번 선지 : 새로운 대안 또한 학생2가 제시했죠? 하지만 우리는 학생1과 학생2 사이의 의견 차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토론의 본질이니까요. -> 해설 추가